

10/9(토) 욕기 묵상 4

욕기 2:1-10

말씀 읽기와 묵상 - 오늘 본문을 읽거나 들으시고 먼저 말씀을 3분 정도 침묵 가운데 개인적으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두번째 천상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탄이 욕의 모든 소유물을 다 빼앗았음에도 그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은 것을 자랑하셨습니다. 이에 사탄은 하나님께 또다른 제안을 하게 됩니다.

사탄의 한계

하나님은 사탄에게 욕의 흔들림 없는 믿음을 말씀합니다(3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욕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이는 사탄이 욕이 가진 소유물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호언장담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욕은 자신의 소유물이 다 빼앗기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고백합니다(20절하-21절,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욕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응하지 않고 또다른 제안을 하게 됩니다(4-5절,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족으로 가족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욱하지 않겠나이까.”). ‘가족으로 가족을 바꾼다’는 것은 그 다음 구절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소유물과 자기의 생명’을 뜻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인간이 ‘소유물’에 대한 집착이 아무리 강해도 그것이 ‘자기애(사랑)’보다 못하다는 사실을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말세에 사람들의 악한 특징을 열거하면서 가장 먼저 언급하는 것이 ‘자기애’입니다(딤후 3:2-5,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그러면서 사탄은 자기애와 관련한 제안을 하게 됩니다(5절,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욱하지 않겠나이까”). 지금까지의 고난이 욕과 관련된 것이었지만 아직까지는 욕 자신에 대한 고난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제안에 또다시 허락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사탄으로 하여금 욕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라고 하셨지만 이제는 욕의 생명에만 손을 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같은 사실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두 가지 큰 차이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로 사탄의 지식은 제한적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첫번째로 했던 호언장담은 거짓으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또 그의 두번째 장담도 그의 생각에서 나온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한편,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 임이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전지전능하신 지식 안에서 모든 것을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마 5:18,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점 일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둘째로 사탄의 활동은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 행동할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이 땅에서 우리가 예배하고 의지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 밖에 없다는 사실과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은 사탄과 악한 영의 존재들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욥의 아내

사탄은 하나님의 허락이 떨어지자 욥의 몸 전체에 종기가 나도록 시험합니다(7절,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몸에 난 종기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욥은 재에 앉아서 질그릇 조각으로 몸을 긁게 됩니다(8절). ‘재’는 희생 제물 등을 태우는 장소로서의 쓰레기 더미가 있는 곳을 뜻합니다. 욥이 ‘재에 앉았다’는 것은 피부병으로 인해 그가 격리 상태가 처해졌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자 그의 아내는 결국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9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대로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욥의 아내는 그들이 당한 엄청난 고난과 함께 남편의 몸에 생긴 피부병으로 인해 그들이 급기야 쓰레기 더미에 격리된 상태로 나왔게 되자 그녀는 하나님께 대한 울분이 폭발하고 맙니다. 사탄이 말한 대로 욥의 아내가 결국 넘어지고 만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끝까지 입술로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았고 도리어 그의 아내의 믿음 없음을 꾸짖게 됩니다(10절,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라.”).

욥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신자들에게 복을 주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고난도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사십년 간이나 광야의 길을 허락하심으로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셨습니다(신 8:2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사십 년 동안에 네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지만 거기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 속에서 주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난 중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인 힘과 양식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모든 고난을 능히 감당하게 하실 것입니다(신 8:3, “너를 낮추시며 너를 주리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고 고난을 통하여 우리는 인간적인 힘과 소유로만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한분으로만 살기에 충분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적용 - 오늘 묵상을 통해 성령님께서 내게 깨닫게 하시고 다짐하도록 해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다짐과 기도제목

1. **적용의 기도:** 오늘 묵상을 통해 내게 주시는 말씀을 개인의 신앙과 삶에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기도하자.
2. **미얀마를 위한 기도:** 2016년 미얀마 서부 라카인(Rakhline) 주에서 주로 활동하는 로힝야족 분리 단체인 ARSA(Arakan Rohingya Salvation Army)가 미얀마 국경수비대를 공격했다는 빌미로 미얀마 군대에 의해 대대적인 인종청소를 당했던 로힝야족 난민 사태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미얀마 국내 로힝야 난민 캠프에 거주 중인 1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장기간 고향에 돌아가지도 못하고, 코로나 19의 확산 속에서 일자리와 식량문제로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이다. 국제 사회가 로힝야 난민 문제에 적극 개입하여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하자.
3. **교회를 위한 기도:** 우리 교회에 속한 EM 부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4. **선교지를 위한 기도:** 우크라이나 전만규 선교사님/가정/사역지를 위해서 중보합니다.